

## 서지도구 표준화의 의미

김 태 수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btree@yonsei.ac.kr)

현행 목록체계는 18세기 서구의 지식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시기는 인쇄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출판물의 확대 보급과 교육인구의 확장에 따라 학문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이 지식을 제어하고 분류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시도로 표현되었으니 그 하나는 백과사전이요 다른 하나는 목록인 것이다.

백과사전은 인류가 접하고 있는 세계를 제어하고 이해하기 위한 이 시대 정신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써, 백과사전이라는 하나의 지식원(source of knowledge)을 통하여 자신이 소속된 사회와 관심주제에 관한 지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문헌이라고 하는 개별 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지식에의 접근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한편 지금은 누구라도 인류의 지식 전반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사회의 기억 가운데서 특정 부분을 우리의 의식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생산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존재하고, 이 축적된 지식과 사회 구성원간을 연결하는 일정한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지식의 정보원을 문헌이라고 하는 개개의 서지자료에 두고, 이 개별 자료를 통하여 지식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인류의 지식 전체를 자료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목록은 자료라는 매체에 수록된 지식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지도구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지식 전반에 대한 접근책이라는 점에서 서지학자나 목록학자들은 이러한 서지도구의 개발을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 그 한 예로써 국제서지협회는 15세기 이후에 간행된 모든 분야의 인쇄 자료를 대상으로 세계서지를 작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1,000만매 이상의 목록카드를 통

합, 편성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저록기법상의 다양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1930년대에 와서 좌절되고 말았다. 상이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에서 생산된 방대한 양의 저작을 저록으로 작성해야 하는 일과 더불어, 이들 저록에 적용할 기술 규범이 정비되지 못한 것이 그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은, 언어나 문자를 달리하는 모든 자료를 저록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술표준의 제정 움직임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지 제어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가 바로 서지정보 처리기술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헌이용체계가 국제적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을 중심으로 한 목록법의 표준화 움직임으로써, 국제목록원칙회의(ICCP 1961년)와 국제목록전문가회의(IMCE 1969년)를 통하여 영미계 목록과 독일계 목록이 표목의 표기와 관련하여 합의의 도출해 내고,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에 관한 표준화도 이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국제서지제어(UBC)나 출판물의 국제적 이용가능성(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이라는 협력체제로 발전되었으며, 특히 서지정보의 국제표준인 UNIMARC이나 CCF 등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다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지식표현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문헌을 식별하기 위한 표준화는 모든 서지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지도구로서의 목록은 바로 자료의 표준화와 개별화를 통한 식별장치으로써 여기에는 일련의 기술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식별의 표준화란 특정 문헌과 이와 다른 문헌과를 구분하는 서지속성을 추출하여 이를 일관되게 기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표준화 과정을 통하여 문헌이라는 매체에 수록된 지식과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연결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의 서지활동은 서지기술과 포맷의 표준화를 통한 자료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들 자료의 소재위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와 개념을 통한 지식의 구조화와 관련되어 있다. 주제 접근을 위한 분류체계와 시소러스의 개발, 각종 색인도구와 검색도구의 개발 등은 바로 이러한 지식구조화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은 인류가 축적해 온 지식을 최선의 환경아래 조직해 둔 최고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도서관은 독자적인 지식 창조자로서의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술과 웹 브라우저,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마크업 언어, 이미지처리, 전자출판 등은 지식의 구조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식패키지와 접근도구의 창조에 도서관이 핵심영역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특정 저작이나 작품 속에 포함된 인물과 주제내용, 시대적 배경과 공간 등 저작 전체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한 새로운 지적 산물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식이나 정보의 소재를 확인하는 단순 구조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영역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지도구의 개발과 구조화체계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